

뉴스

오늘의 주요뉴스

보도기사검색

뉴스 제보

보도국 소개

코로나19

🏠 홈 > 뉴스 > 오늘의 주요뉴스 | 🖨️ Printing

오늘의 주요뉴스

대분류	TJB 8뉴스
소분류] 경제
제목	[리포트]로컬푸드 급성장.. 한편은 쟁탈전도
작성자	2020-01-17 강진원
방송영상	

[TJB뉴스]로컬푸드 급성장.. 한편은 쟁탈전도



내용

【 앵커멘트 】

도농 복합 지역인 세종시의 로컬푸드 판매액이 4년 만에 800억원을 돌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농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
신도심권에서 소비하는 구조가
성공을 거둔건데,
이렇다보니 로컬푸드 매장 위치를 놓고
지역 간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

강진원 기자.

【 기자 】

세종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는
오전 내내 장 보러 나온 주부들로 만원입니다.

농부들이 새벽에 갖다 놓은 농산물을
먼저 확보하기 위해섭니다.

▶ 인터뷰 : 박신숙 / 세종시 도담동

- "마트는 유통이 매일매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돌아오는 과정이 있고 유통도
놓고 그날 다 소비가 되니까 신선하죠. 물건이."

납품 전 품질 검사와 당일 배송,판매 등
엄격한 관리 원칙을 지키면서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.

매출액은 첫 해인 2015년 21억원에서
2017년 279억, 지난해는 791억으로 크게 뛰었고
1호점은 지난해 171억원어치를 팔아 전국
직매장 가운데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.

농가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
참여 농가가 2015년 218개에서 이 달 954개로
급성장했고 월매출 300만원 이상은
농가의 33%, 100만원 이상 54%에 달했습니다.

또 전국에서 6천여명이 견학을 올 만큼
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세종시는 현행 2개 점을 2년 내 4곳으로 확대할 계획인

▶ 인터뷰 : 이춘희 / 세종시장

- "(싱싱장터 3, 4호점은)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갖는 복합문화시설을
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."

사정이 이러자 직매장 위치를 놓고 쟁탈전도
벌어지고 있습니다.

▶ 스탠딩 : 강진원 / TJB뉴스

- "세종시는 당초 새롬동 주차장터에 싱싱장터 3호점을 개장하려다 다정동으
있습니다."

새롬동은 싱싱장터 개장과 함께
침체된 상권의 회복을 기대했던 터라 입지변경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
반대로 다정동에는 싱싱장터의 등장을
마을 경제 활성화의 호기로 보고 있는 만큼
세종시의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.

TJB 강진원입니다.

[영상취재 : 김용태 기자]

TJB 대전방송



트윗

